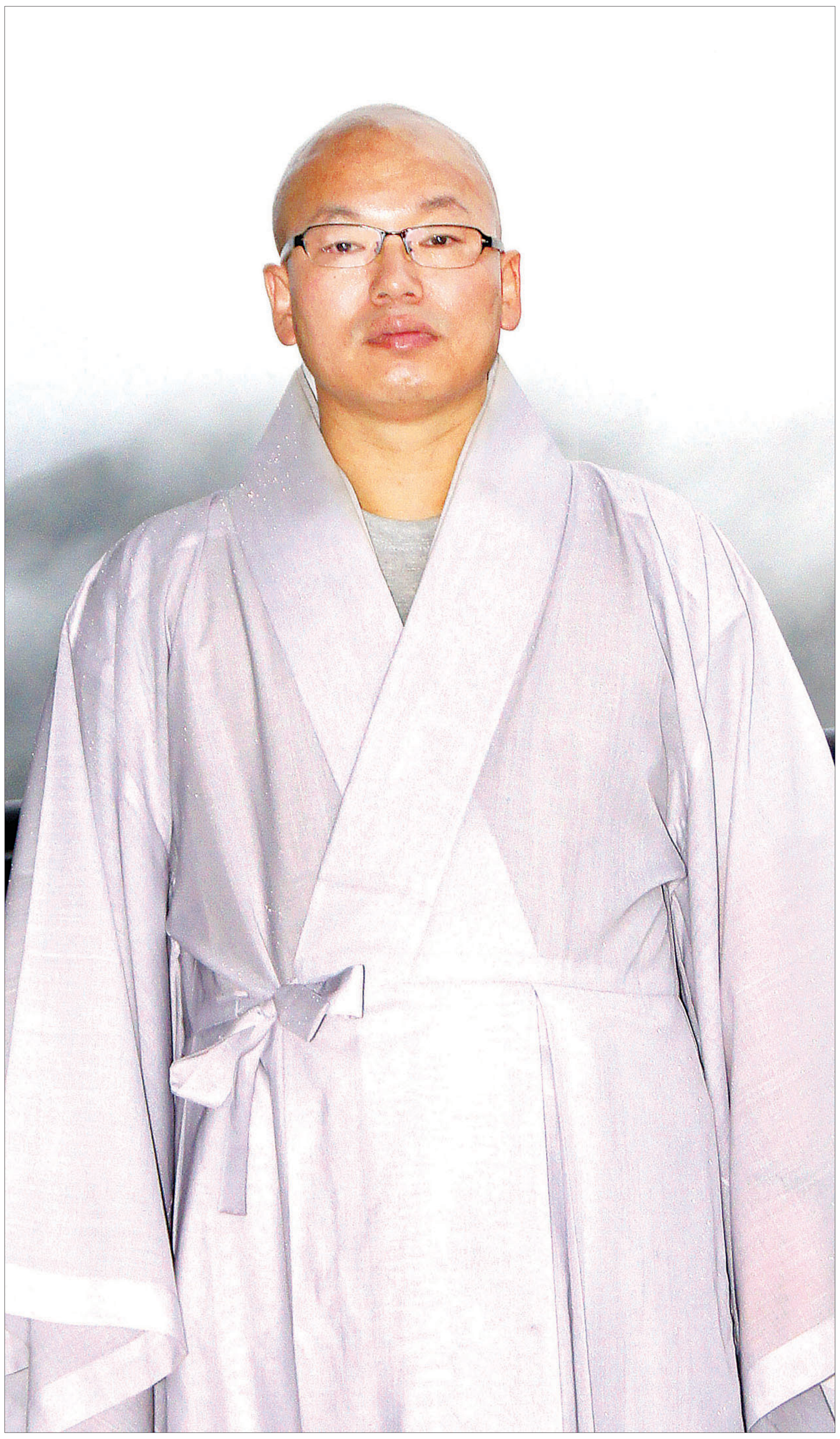
한국불교 밝은 미래는

월공 스님 남원 영선사 주지



월공 스님은 … 여섯 살 때 동진 출가한 스님은 1992년 군승법사 입대 전 가산당(伽山堂) 지관(智冠)큰스님을 은사로 정식 출가했다. 남원 대강면 약수암(현재는 약수정사로 명칭변경)에서 한글을 깨우치고 염불을 배웠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했고, 대학원을 수료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전통 염불을 가르침) 본과 어산 전문반을 졸업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청소년학과를 졸업했으며, 사회복지사 1급, 보육교사 1급. 요양보호사 1급, 1종 대형면허, 방화관리자 2급을 소지했다. 함양경찰서, 남원경찰서 경승을 역임했고 남원 함양불교대학과 사암연합회 소임을 역임했다.

전북 남원시 인월면 오봉산 가마봉 아래에는 지장도량이 하나 있다. 영선사다. 덕유산의 정기가 서려있고 정면으로 지리산의 전망대라 불리는 삼봉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다. 그곳에서 수행에 매진하며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는 주지 월공 스님을 만났다.

월공 스님은 영선사를 지장성지로 가꾸기 위해 정진에 또 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철야정진은 200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영선사는 철야정진에 동참하는 불자들을 지장행자라 부르며 올바른 지장신앙 선양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998년 시작된 지장 철야정진은 2002년 태풍 '루사' 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와 스님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서 생사를 헤맬 때를 제외하곤 거른 적이 없다. 지장행자들은 지장보살 〈본원경〉, 〈점찰선악업보경〉, 〈지장십륜경〉의 〈지장삼부경〉을 바탕으로 정진중이다.

월공 스님은 여섯 살 때 동진 출가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절에 맡겨진 것이 출가로 이어졌다. 어린 나이에 무릎 꿇고 회초리 맞아 가면서 한글을 깨치고, 염불을 배워야했던 힘든 시절이었지만 스님은 오히려 그 시절을 큰 가피로 여기고 있다.

스님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군승법사로 입대하기 전, 총무원장을 지낸 가산당(伽山堂) 지관(智冠) 스님을 은사로 정식 출가했다.

진정한 지장신앙 의미 찾기

스님이 지장기도를 하게 된 것은 제대 후 세민 스님이 주석하고 있던 수안사에서 백중기도를 하면서 부터이다. 백중기도 기간 〈지장경〉을 의무적으로 독송하면서 지장신앙을 접하게 됐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지장기도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스님은 1997년 말에서 1998년 초까지 진행했던 남원불교대학 강의 중에 계율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다가 삼국유사의 '진표율사' 에 대한 행장을 접하게 됐다.

"진표율사는 지장행자셨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시고 대불사를 이루셨습니다. 저는 그때를 진정한 출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발심출가 이후 한 번도 변화를 생각해 본적도, 남을 부러워 해 본적도 없고 한 길만 걸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스님은 행장을 읽어 내려가던 중 진표율사께서 미륵불을 만나는 대목에 이르러 한없이 눈물을 쏟았다. 월공 스님은 요즘 들어 지장신앙은 영가만을 위한 기도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가에 대한 대목은 지장신앙의 일부에 불과한데도 마치 지장신앙이 잘못 알려진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또한 스님은 지장신앙에 대한 의식문제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스님은 "미타신앙과 지장신앙이 혼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라지고 잊힌 지장의식을 살려내려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인재 양성 위해 '등용청소년 공부방' 운영

그리고 스님은 미래 인재 국가사회 인재 양성 발원 지장행자 수행을 하면서 최근에 '등용청소년 공부방' 을 운영하고 있다. 영선사는 매일 올리는 사찰의 축원 속에 '국가사회 동량 양성불사 성취' 라는 독특한 문구를 넣어 축원을 올리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인재양성은 '지역아동센터' 로 출발했다.

스님은 "당시 까다로운 행정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인가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희망 학생이 두 달도 안 돼 160명에 이르게 되고 하루 최대 72명이 공부할 정도로 지역에서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후 행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청소년 공부방으로 전환하고 2010년에는 '사람과 희망' 이라는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2008년 경, 불사와 지장기도를 하던 중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어 오갈 곳 없이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이 잠시나마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지장보살의 사상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작은 공부방을 마련하게 된 것이 지금의 청소년 공부방으로 발전하게 됐다.

월 3백~4백. 연간 4천 만 원에 육박하는 공부방의 운영비는 상당한 부담이지만 꾸준히 지원해주는 분들과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 힘을 얻고 있다.

30년 넘게 지장기도로 수행 정진
열악한 환경의 농촌 청소년 위해
2008년부터 '등용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방학중 용맹정진 프로그램도 개설

공부방 출신 명문고 명문대 진학
절에 청소년 많아진 게 더 큰 보람
군장병도 미래 동량, 군부대도 지원
지리산댐 반대운동 등 시민활동도

"인재의 양성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격적 수행을 통한 것이고, 둘째는 선거를 통한 것이고, 셋째는 학습을 통한 것입니다. 그 중 세 번째를 선택해 사찰이 위치한 인월에 무료 공부방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교육 여건은 대도시에 비해 농 · 산촌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청소년들이나 농 · 산촌의 청소년들이나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인 남원시 인월면에는 변변한 학원이나 도서관 같은 시설이 없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은 방과 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없고, 그로 인해 여가 활동은 물론 도시 아이들과 학력의 차이가 점차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스님은 그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해 인월면에 50평 정도의 건물을 임대해 아이들을 위한 '등용 청소년 공부방(이하 공부방)' 을 만들었다. 공부방은 청소년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냉 · 난방시설을 갖추고 식사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서열람실과 집단 지도실, 휴게실을 갖췄고, CCTV, 고속 인쇄기, 컴퓨터와 노트북컴퓨터, 프린터 등을 갖췄으며,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인터넷 강의도 들을 수 있게 했다.

"예전에는 열심히 공부만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자질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청소년들의 진로가 결정되는 시대입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농 · 산촌 아이들도 얼마든지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이름도 '개천에서 용 난다' 는 의미의 '등용 청소년 공부방' 으로 정했습니다."

기성 학원들의 반발도 부담이 됐지만 스님이 낮에는 절에서 수행하고 저녁이면 공부방에서 밤 10시까지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면서 이러한 문제들도 하나하나 개선됐다. 주말이면 20~30명의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이용하고 시험기간에는 60명 정도가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다. 스님의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들의 학업성적 신장으로 나타났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골학교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외국어 고등학교와 명문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탄생했던 것이다. 그러자 지역 주민들의 인식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무료 공부방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공부방은 월 3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하는 임대 시설인데, 건물주인 인월새마을금고 측이 150만원의 후원금을 전해오기도 했다. 스님에게 큰 힘이 아닐 수 없다.

2년 전부터는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과 연세대에 입학한 학생도 배출했다. 이들 학생은 모두 학원은 가지 않고 오로지 공부방에서 스스로 공부하며 합격의 영광을 누렸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절에서 청소년을 많이 보게 됐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청소년들이 스스로 절을 찾아와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절일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생적인 커뮤니티가 생성되어 절에 큰 행사가 있으면 각자가 스스로 자원봉사자가 되어 주고 있다. 스님은 학생들에게 불교를 강요하거나 불교색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불교색을 굳이 찾는다면 공부방 사무실의 지장보살상과 연등 몇 개가 걸려있는 게 전부일 뿐이다.

스님은 아이들에게 직접 학습지도도 하고 있다. 아이들의 학습지도를 하려면 스스로 아이들보다도 더 공부를 해야 한다. 기도와 수행 중에 공부를 하는 일이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지만 스님은 아이들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아이들과 친구도 되고 때로는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휴대폰 문자로 아이들과 대화도 합니다." 부모들과 대화가 부족한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스님은 미소를 짓는다.

방학 동안에 도시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특별 용맹정진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절에서 숙식을 하면서 오전 9시부터 밤10시까지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다. 도시의 청소년들은 산골생활을 느끼게 하고, 산골 청소년들은 도시의 청소년들의 공부하는 모습에서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로 인해 교류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등용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월 3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부담도 되지만 인재를 육성하는데 이 정도 투자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미래는 인재육성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등록금 부담으로 부모들

영산불교 현지사 영산불교대학 –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로 불교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다

21세기의 나란다 불교대학 '영산불교대학', 560명 불자들이 신심(信心)과 정견(正見)을 연마하는 한국 최고의 불교교양대학

영산불교대학 수업장면

■ 2014년 입학생 560명 감로의 정법으로 신심을 불태우다 : 최고 교수진의 열강, 불자들의 열화같은 호응

영산불교대학은 많은 불자들의 요청에 의해 2010년 3월에 개교한 이래로 해마다 불자들의 열화같은 호응과 성원으로 매 학기마다 수강하는 불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제주 분원에서 불교대학을 개원하였고 2014년부터는 국내외의 불자들의 요청에 의해 통신강좌도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등록하여 수강하고 있는 학생 수는 560여 명에 달하고 앞으로 2~3년 내에 1000여 명의 불자들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불교대학으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영산불교대학에서는 불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과목과 정법에 정통한 우수한 강사진의 열강을 통해 방대하고 심오한 부처님 법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세계불교를 이끌어갈 수준 높은 불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 세계 어느 불교대학에서도 배울 수 없는 불법의 정수 : 세계불교를 쇄신시킬 정법의 가르침

영산불교대학은 〈아함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 경전 학습을 기초로 해서 두분 큰스님께서 저술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2〉에서 밝힌 우주적 진리인 신불교 교학을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32상 80종호를 갖춘 빛의 인격체로서 시공과 유무를 초월한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는 부처님 실존론 ▶인간의 본체이며 윤회주체인 인간 영혼체의 깊은 비밀과 실체를 밝힌 인간 본체론 ▶사후에 가는 지옥 · 천상 등 윤회세계와 극락 등 해탈세계의 실존과 정확한 실상을 밝힌 윤회 · 해탈론 ▶인간과 우주만물 탄생의 지고한 비밀을 인류사상 최초로 밝힌 우주론(공아자성기론) ▶불보살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정통수행법인 타력중심의 팔정도칭명염불 수행론 등입니다. 특히 불과를 증득하신 두분 큰스님께서 전하는 부처님세계의 소식과 부처님 말씀을 불자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해드립니다.

■ 영산불교대학의 교육목표 : 세계불교를 이끌어갈 신심과 정견을 갖춘 불자 양성

지금의 세계불교는 부처님의 '무아론(無我論)' 을 잘못 해석하여 인간본체인 영혼체의 존재도 나아가 부처님의 실존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불보살이 되는 정통수행법도 없는 3무불교(三無佛敎)로 왜곡되고 왜소화되어 버렸습니다. 영산불교에서는 2000년 이상 왜곡되어온 이 무아론을 바로잡아, 무아는 인간 영혼체를 부정한 교설이 아니라, '현상계의 나(我)의 실체없음' 과 '나(我)라는 이기적인 생각' 을 버리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야 함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불자 여러분들에게 '영혼체 윤회론' 이라는 신교설을 불교사상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부처님의 실존에 대해서 기존 불교의 추상적인 '불신론(佛身論–삼신론)' 을, 불과를 증득한 두분 큰스님의 수행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쉽고 구체적으로 강의합니다. 이를 통해 부처님께서 '무아속 절대계(연화장세계)' 에 여여히 계심을 증명하여 불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종(禪宗)의 영향으로 '마음이 부처' 라는 잘못된 교설에 익숙해져 있고 또 방대한 8만장경의 숲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영산불교대학은 정견과 신심을 확고하게 정립해드립니다. 영산불교대학을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의 불교를 이끌어갈 수준 높은 불자들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2013년 4학년 졸업식

■ 2600년만에 내리는 감로의 정법 : 완성된 만자(滿字)의 가르침

초기불교는 부처님 재세시의 직접 교설을 담은 아함부 경전의 가르침으로서 생천(生天) · 해탈(아라한) 중심의 기본 가르침이고, 〈열반경〉에서 말하는 반자(半字)의 가르침입니다.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구도에 따라 사바세계에 몸받아온 붓다의 화신들께서 쓰신 대승경전 중심의 가르침으로서, 초기불교 보다 한 차원 높지만 불완전한 가르침입니다. 영산불교 신불교는 현지사의 광명만덕 · 자재만현 두분 큰스님께서 불과를 증득하시고 부처님 보신불이신 노사나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수받아 펼치는 21세기 지금 이 시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세계불교계의 왜곡되고 왜소화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대승경전에서 미비된 교설을 보완한, 삼계를 벗어난 보살 붓다됨을 목표로 하는 완성된 만자(滿字)의 가르침입니다. 불자 여러분! 영산불교대학에서 우주적 진리인 신불교의 만자의 가르침을 만나보십시오.

졸업식 장기자랑

출가 : 청정한 수행의 길, 윤회생사를 벗어나는 길
지금 현지사로 젊은 인재들이 출가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참선수행을 열심히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사를 만난 이후 염불이 정법임을 알았습니다."
– 대성행자 (00승가대학 졸업)

"저는 현지사의 스님이 되는 길이 윤회를 벗어나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 원오행자 (고려대 영문과 졸업)

"어렸을때 부터 출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뤘습니다."
– 자성행자(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젊은이들 속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말로 행복해 지는 길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 혜주행자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한영통역과 졸업)

영산불교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